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교 총장

주제 강연 1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iews of the Creationism Movement in Korea

양 승 훈

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교 (Eswatini Medical Christian University)
본문 출처: 양승훈(2026)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ABSTRACT

발표 개요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창조론 운동은 사실상 1981년에 시작된 창조과학 운동(Creation Science Movement, CSM)으로 요약된다. 이 운동에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① 엘리트 과학자 주도

KAIST·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저명한 기독교 과학자·공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부분 생물학·지질학·천문학 전공자가 아니었으나 학문적 권위가 운동 확산에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② 교파를 초월한 수용

미국·일부 국가에서 보수·근본주의·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는 물론 일부 진보 교회까지 CSM을 수용했다. 주요 교단·기독교 대학·안학교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2017년 박성진 정권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CSM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CONTENTS

목 차

- I 선구자
Pioneers — 1980 이전의 토양
- II 큰 시작
Big Start — 1981 창립과 폭발적 확산
- III 실패를 통한 교훈
Lessons from Failure — 교과사 교육관 논쟁
- IV 조용한 출애굽과 새로운 시작
Silent Exodus — 분화와 대안 운동의 등장
- V 내파(內破)의 시대
Implosion — 내부로부터의 균열
- VI 조로(早老)의 징후?
Symptoms of Premature Aging — 2017 이후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 양승훈 (2026)

3 / 94

PROLOGUE

들어가며: 2017년의 충격

- 2017년 8월 하순,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 박성진(당시 POSTECH 기계공학과 교수) 지명
- 한국창조과학회(이하 창조과학회) 이사 이력이 도마에 오름 — 인사청문회 직전 이사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퇴
- 한 달 앞선 7월에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창조과학자와의 공저 사실로 논란
- 유영민은 청문회에서 "창조과학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 통과
- 두 사건은 한국에서 창조과학 운동이 처음으로 "공직 부적격" 사유로 작동한 분수령이 되었다

“박성진 청문회는 창조과학회가 한국 사회에서 ‘학문’이 아닌 ‘종교적 신념’의 영역으로 선이 그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양승훈 (2026)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 양승훈 (2026)

4 / 94

본 연구의 의의

- 창조과학회는 외형적 크기에 비해 신학적·역사적 정리 문헌이 극히 부족했다
- 초기의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연구가 어려운 상태였다
- 발표자(양승훈)는 1980년 창립준비위원으로 시작해 부회장·이사·평생회원을 거치며 운동의 처음과 가운데, 그리고 변화의 시기를 모두 경험한 내부자(insider)이자 후일 비판적 외부자(critical outsider)가 된 인물
- 본 발표는 1981년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CSM의 궤적과 2004년 [지적설계연구회], 2017년 [과학과 신학의 대화] 등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추적한다

학술적 참조 문헌의 부재

한국 CSM에 대한 본격적 학술 연구는 박형욱(Hyung Wook Park)·조규훈, 박희주(Hee-joo Park) 등 소수의 과학사가에 한정되어 있다. Ronald L. Numbers는 한국을 "세계의 창조론 수도"로 명명한 바 있다.

선구자

Pioneers — Before 1980

한국에서의 창조과학 운동도 무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미국의 흐름, 선교사들, 그리고 국내의 외로운 강의들이 그 토양을 마련했다.

미국 창조과학의 부활

- 미국 창조과학연구소(ICR) 설립자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는 1984년 『현대 창조론의 역사』(History of Modern Creationism)에서 "창조과학의 부활이야말로 20세기 말의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라고 평가
- 위스콘신대 과학사학자 Ronald L. Numbers(1942–2023)는 1992년 The Creationists에서 북미주 창조과학 운동이 오세아니아·유럽·아시아로 확산된 과정을 추적
- 1991년 갤럽조사: 미국 성인의 47%가 "하나님이 1만년 이내에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하였다"고 응답
- 이러한 미국발 흐름이 1980년 여의도 광장을 통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다

"South Korea became what Ronald Numbers has called "the creationist capital of the world.""

— Park & Cho, History of Science 56 (2018)

계의돈 (Robert L. Goette, 1929–2015)

- 한국에서 창조론 운동의 대표적 선구자 두 사람: 계의돈과 주영흠
- 남장로교(PCUSA) 선교사로 1960년 한국 도착 — 송전대(현 한남대) 초대 학장 인돈(W. A. Linton, 1891–1960)의 요청
- 1976~1987년 송전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성경과 과학"이라는 과목 개설 — 한국에서 처음으로 창조론을 정규 강의로 가르친 인물
- 이정순: "당시 한국 사회는 진화론이 일반화돼 학생들이 신앙과 과학을 이원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계의돈의 강의는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고 1981년 한국창조과학회 설립의 초석이 됐다"
- 1981년 창조과학회 창립 시 김준평(중앙대)과 함께 두 명의 고문 중 한 사람으로 추대

주영흠 (b. 1934) — 외로운 선각자

- 서울대 사대 물리과 졸업,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
- 충신대·장신대 등에서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강의하며 창조론을 가르침
- 1978년 가을, 한국과학원(KAIS, 현 KAIST) 물리학과 석사 1학년이던 양승훈이 "창세기의 우주 과학적 해석" 강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음 — 양승훈이 창세기와 과학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
- 그러나 주영흠은 창세기 "날(yôm)"을 시대로 보는 진행적 창조론(Progressive Creationism) /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을 지지
- 1980년 헨리 모리스 등이 인도한 창조과학 강연을 기점으로, 젊은 지구론(Young-Earth Creationism) 흐름이 그의 입장을 변방으로 밀어내게 됨

김영길(1939–2019)의 회심

- 안동 출생, 1964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 1967년 도미, 1969년 미주리대 석사, 1972년 RPI(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재료공학 박사
-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NASA Lewis Research Center 연구원으로 근무
- 1974년 부활절 직전, 시온주의자·세대주의자 Hal Lindsey(1929–2024)의 베스트셀러 『대유성 지구의 종말』(The Late Great Planet Earth)을 읽으며 회심
- 1979년 한국과학원(KAIS, 현 KAIST)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 — 한국 창조과학 운동의 중심인물이 됨

"기독교 신자가 아니던 형 김호길(포항공대 초대 총장)은 동생이 "지구와 우주가 6천년 되었다"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신이 있느냐고 꾸중하기도 했다."

— 회고

'80 세계복음화대성회 — 분수령

- 1980년 8월 11~15일, 여의도 5.16 광장(현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주관 대규모 부흥회
- 기간 중 12개의 분야별 위성집회가 동시 개최
- 이 중 8월 12~15일 CCC 정동 강당에서 열린 "창조냐? 진화냐?" 세미나가 핵심 —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위성집회였다
- 예상을 뒤엎고 학생·일반인·교역자·과학자 등 연인원 4,000여 명이 참석
- 이 세미나가 한국 창조과학 운동의 직접적 출발점이 된다

강사진

- Henry M. Morris (ICR 소장)
- Walter L. Bradley (1943~2025, Texas A&M)
- Duane T. Gish (1921~2013, ICR 부소장)
- 김영길 (KAIS 재료공학과) — 유일한 국내 강사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 앞부분 (2026)

11 / 94

롯데호텔 예비모임 (1980. 8. 16)

- 세미나의 폭발적 반응을 본 다음 날, 김영길과 국내외 크리스천 과학자 25명이 롯데호텔에 회집
-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을 위한 예비모임 성격
- 결정된 사항: ① 창조론에 관한 한글 서적을 시급히 발간 ② 사업 추진 계획 수립 ③ 미국 ICR과의 긴밀한 협력
- 참석자 면면: 복음화 대성회 강사진(ICR 임원)과 통역을 맡았던 미국 유학파 과학자들, 그리고 홍릉 과학 단지의 기독교인 연구자들이 주축
- 이 모임을 모태로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After creationism arrived in Korea in 1980 through the global campaign of leading American creationists, including Henry Morris and Duane Gish, it steadily grew in the country, reflecting its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 Park & Cho (2018)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 앞부분 (2026)

12 / 94



큰 시작

Big Start — 1981 Founding & the Explosive Decade

한국 최고의 과학 엘리트들이 진화론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충격이었다.

II. 큰 시작 · 1

1981. 1. 31 —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총회

- 1981년 1월 31일, 한국창조과학회(KACR,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정식 창립
- 정회원 54명, 준회원 40명으로 조출하게 출발
- <한국일보>(1981.1.27.), <조선일보>(1981.2.3.), <중앙일보>, <경향신문>(1981.1.28.), <동아일보>(1982.2.22.) 등이 우호적으로 보도
- CBS·FEBC 등 기독교 방송과 KBS도 창립 소식과 초기 활동을 다룸
- "한국 최고의 과학 엘리트들이 창조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짐

초기 회원의 60% 이상이 KAIST 소속 — 1980. 12. 31자로 KIST와 KAIS가 KAIST로 통합된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

19명의 발기인과 2명의 고문

발기인 19명 (대학원생 양승훈·심영기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최고 대학·연구소의 교수·연구원)

- 김영길 — KAIST 재료공학과
- 정명균 — KAIST 기계공학과
- 김정욱 — KAIST 환경공학부 선임연구원
- 남수우 — KAIST 재료공학과
- 노정구 — KAIST 생물공학부 선임연구원
- 양승훈 — KAIST 물리학과 박사과정
- 유병우 — KAIST 지역개발부 선임연구원
- 이은호 — KAIST 환경시스템부 선임연구원
- 장근식 — KAIST 항공공학과
- 문한규 — 한국표준연구소 재료시험실장
- 민성기 — 홍릉기계
- 송만석 — 홍릉기계
- 유완영 — 한국전기통신연구소 부소장
- 김해리 — 서울대 생화학
- 심영기 — 고려대 화학 석사과정
- 최영상 — 고려대 화학과
- 김정기 — 중앙대 전자과
- 채명준 — 한양대 화학과
- Wesley J. Wentworth — Telescopic Engineering
- [고문] 김준평(중앙대 농화학), 계의돈(송전대)

매스컴의 주목과 폭발적 확산



- 창립 10여 년 만에 회원 54명 → 1,000여 명으로 폭증, 1990. 11. 12 교육부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 <창조> 뉴스레터의 통계는 학회 직접 확인분만 집계 — 실제 전국 강연 횟수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
- 1990년대 초까지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매년 창조과학 집회를 개최

CCC와 김준곤 — 산파의 역할

- 한국대학생선교회(CCC)는 '80세계복음화대성회를 주관하고 "창조냐? 진화냐?" 세미나의 장소를 제공
- 창립 후 수년간 창조과학회 사무실도 CCC 총재 김준곤(1925-2009) 목사의 배려로 정동 CCC 건물에 위치
- CCC는 캠퍼스 별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운동 확산에 결정적 기여
- 초대 행정간사 심영기도 CCC 협동간사로 활동

"복음과 성경이 한국에 전해진 것,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것, 그리고 창조과학회가 발족한 것이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3대 사건이다."

— 김준곤, 『예수 칼럼』

초기 간사들 — 1981. 1 ~ 1984. 7

창립부터 6대 조덕영 간사 취임까지 3년 반 동안 5명의 간사가 거쳐갔다.

1대	심영기	고려대 대학원생 → UC Davis 유학 (현 인제대 명예교수)
2대	양승훈	KAIST 물리학과 박사과정 → 박사 후 경북대 교수 부임
3대	이웅상	서울대 생물교육과 → 1983 여름 미국 유학 (현 명지대 명예교수)
4대	배용수	서울대 미생물학과 → 1-2개월 후 미국 유학 (현 성균관대 명예교수)
5대	조정일	서울대 생물교육과 → 단기 봉사
6대	조덕영	1984. 7 ~ 1998 (마지막 1년 안식년) — 14년간 문서운동 전성기 견인

조덕영 — 창조과학회의 실질적 기초

- 1984년부터 1998년까지 14년간 전임간사로 헌신
- "외부적으로는 김영길의 창조과학회의 아이콘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덕영이 현재의 창조과학회의 기초를 놓았다"
- 김영길과 공저한 글의 거의 모두, 김영길 명의 발표문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조덕영이 작성
- 1989년 창조과학회 출판부 인가(발행인 김종배, 편집인 조덕영)와 함께 40여 권의 단행본·전도지를 출간
- <창조>지의 사실상 편집인으로 운동 전체의 문서·홍보 인프라를 구축

"그는 열정적인 창조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매우 학구적이었다. 그가 간사로 헌신했던 14년간은 한국 창조과학 운동의 전성기였다."

— 양승훈 (2026)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1981)

- 창조과학회 출판사역의 포문을 연 첫 번째 책
- ICR 자료를 번역·정리하여 양승훈(당시 박사과정 2년차)이 편집 총괄
- 양승훈이 "V. 화학학적 고찰"과 "VI. 연대 측정의 과학성"을 직접 번역·저술 — 책의 거의 절반
- 을지로 2가 인쇄소 골목 여관방에서 이틀간 밤을 새며 편집 — 아마추어의 작업이었지만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진화론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반향을 일으킴
- 1981년 8월 25일 초판 — 수십쇄를 거듭하며 진화론 비판의 고전이 됨

"당시로서는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진화론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이를 책으로 비판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 회고

Roger Lewin 사건 — 출발의 균열

- 1980. 10. 16~19, 시카고자연사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 160여 명이 "대진화"(Macro Evolution) 학회 개최
- Roger Lewin이 <Science>에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라는 글로 요약 발표
- 한국어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진화론"으로 번역되며, 창조과학회 지도자들은 이 글을 창조론 지지로 오해 → 『진화는...』 권말 부록에 원문 수록
- 김영길씨 르윈에게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며 편지 — 실망스러운 답장이 올

"당시 참석한 시카고 학회의 과학자 중 진화의 사실성을 문제 삼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했을 뿐이다. ... 자신의 입장을 창조론의 근거로는 삼지 말라."

— Roger Lewin → 김영길 (1980년대 초)

뉴스레터 <창조>의 확산

- 창립~1984년 중반(3년 반): 14회 발간, 매 호 400~600부
- 조덕영 전임간사 취임 후(1984 후반기~): 매월 4,000부 발간
- 구독회원이 정회원보다 많아짐 — 무가지(無價誌)였으나 운동의 인지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림
- 통일교 후원 오해 사건: 발기인 KAIST 정 모 교수의 통일교 써클 활동 이력 + 후원자 최순영 장로(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루머가 결합 — <코리아 선데이 저널> 발행인 연훈이 명예훼손·공갈미수로 구속되면서 진정됨
- 정 모 교수는 결국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창조과학회를 떠남

ICR과의 연계와 1985년 재방한

- 초기 자료는 대부분 미국 ICR이 제공한 슬라이드 세트
- 한국 임원들은 이를 복제·번역하여 자신의 전공에 맞게 보완 → 대중강연용으로 반복 사용
- 1985년 헨리 모리스와 ICR 부소장 Duane Gish가 재방한 — UC Berkeley 박사, Cornell 의대 교수, Upjohn 연구원의 화려한 경력
- Gish는 서울대·여의도 순복음·CCC·KAIST·사랑의 교회·과기대·경북대·영남대 등에서 연속 집회
- ICR 자체가 한국 창조과학의 확산 속도에 놀랐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방문이 되었다

대중강연 — 운동의 엔진

- 주요 강사: 김영길(간판), 김해리, 심영기, 노정구, 채명준, 김정욱, 김정한, 양승훈
- 1세대 보강: 노희천(MIT 핵공학, KAIST), 김종배(영국, 건국대), 신현길(독일, 건국대), 김영인(생산기술연구원)
- 노희천의 "노아의 홍수" 강의(1984.2)는 가장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운동에 참여시킨 강연 시리즈
- 조덕영이 개발한 공룡 강의는 사역을 어린이까지 확장
- 1995. 9까지 전국적으로 활동한 창조과학 강사는 100여 명

강사로 현금의 전통

대부분의 초기 강사들은 김영길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강사로 전액을 창조과학회에 헌금했다. 초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운동의 정신적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관습이었다.

주요 출판물 —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번역
간증집 『열리는 영의 세계』	—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	김종배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노희천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조덕영
『놀라운 창조 이야기』	Duane Gish 번역
『신비한 생물 창조섭리』	손기철·성인화·조정일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	김영갈·조덕영
『자연과학』 (1990)	김영길 외 26인 — 명지대·우석대·고신대·경희대 교양 교재로 사용

Michael Denton 『진화론과 과학』(1994 번역)

- 조덕영이 출판을 담당하던 시기의 대표적 학술서
- 원서: Evolution: A Theory in Crisis (1985)
- Denton은 영국 Bristol 대학 의학박사(1969), London King's College 이학박사(1974), 뉴질랜드 Otago 대학 생화학 교수(1990-2005)
- 현재 시애틀 Discovery Institute 산하 Center for Science and Culture 선임연구원
- 이 책(특히 14, 15장)은 1980년대 후반 Phillip E. Johnson이 지적 설계 운동을 시작하는 데 큰 영향, 또한 Michael Behe의 "환원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 개념에도 영향
- 한국에서 출간된 가장 탁월한 다윈 진화론 비판서로 평가 — Denton 본인은 "불가지론자"라 표명

전국 지부 설립 (1985-1994)

1985~88	대구·경북(양승훈), 부산(김경천)
1989	경상남도 (경상대 허종화)
1990	창원 (정길용 의사)
1991	일본(우제태), 포항(포항공대 김경태), 원주(상지대 정찬선)
1993	제주(제주대 오덕철)
1994	공주(공주대 이원국), 천안(순천향대 정계현)

대전·충남(원동연), 대구·경북(양승훈), 부산(김경천) 지부가 가장 활발 — 대전 지부는 원동연이 소유한 대덕기독교문화센터를 사무실로 무료 임대

KAIST 교회와 RACS — 차세대 강사 발굴

- KAIST 3회 신성철(전 KAIST 총장) 등이 시작한 한국과학원 기독교학생회 → 5회 김광수(현 하버드 의대) 시기 "KAIST 교회"로 개명
- 1988년 고신대 신대원 졸업한 장갑덕 목사 청빙 — 이후 30여 년 담임
- 1992. 5. 14, 박사과정 고재형 등 20여 명이 "창조과학연구회"(RACS, Research Association of Creation Science) 결성 (1993년 지도교수 화학과 이병석)
- KAIST 박사과정생 강사들: 양승훈·김경천·김기태·김경태·제양규·현창기·고재형·박문식·정희권 등
- RACS는 후일 한국 지적 설계 운동의 핵심 거점이 된다

노아 방주 안정성 연구 (1992. 6 ~ 1993. 5)

- 한국기계연구원 해사기술연구소 해양공학운동성연구실장 홍석원 박사팀(9명)이 "노아 방주의 안전성 연구" 수행
- 1993년까지 약 480척의 선박 성능 평가를 수행한 세계적 선형시험 기관 — 국가출연 연구기관
- 비용은 권도원 장로(8체질 한의학 창시자)가 헌금
- 결과: 노아 방주의 길이·폭·높이 비율은 13척의 비교 선박 중 최고의 복원 안정성을 보이며, 약 30m 파고에서도 안정성을 유지
- 1992. 12. 11 발표 — KBS·MBC 9시 뉴스, <조선·동아·중앙·국민일보> 등 일제히 보도
- <과학동아> 1993. 8월호에 홍석원 기고문 전재 — 한국 창조과학의 첫 "수출용" 연구라 자평했으나, 학술적 평가는 별개



실패를 통한 교훈

Lessons from Failure

교과서·교육관·국제연대 — 아심 찬 시도들은 때로는 좌절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외부 결정의 벌미를 남겼다.

이양림·이광원 — 저자 섭외

- 이양림 — 이화여대 동물발생학, 신길성결교회 장로 → 처음에는 적극 참여 않았으나 교과서 작업을 맡으며 적극 참여
- 이광원 —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업, 서울과학고 생물교사, 조덕영과 동향
- 1988. 5 교육부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 양승훈을 포함한 여러 임원들이 교정쇄를 돌려 읽음
- 1989. 1. 13 계몽사를 통해 1차 심사본 제출
- 내용·문장·사진·그림·도표 모두 "흠 잡을 데가 없는" 수준으로 작성됨

교과서 개정 운동의 출발 (1988)

- 창립 당시부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교과서 개정 추진 위원회 조직
- 초등은 국정, 중고등은 검인정 → 중고교 생물 교과서가 표적
- 1988. 4. 20 문교부가 제5차 교육과정(1987.7~1992.9)에 따라 1990학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2종 교과서 검정 공고
- 기독교출판사들은 교과서 출판 경험이 전무 → 조덕영의 제안으로 계몽사와 연결
- 계몽사 김춘식 부회장과 김영길의 "동향(同鄉)·동본 김씨" 친교로 결정 —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출판 결정

1차·2차 심사 합격 (1989)

1989. 1. 13	계몽사를 통해 1차 심사본 제출
1989. 3. 14	1차 심사 합격 통보 — "생물의 진화" 장에서 20여 군데 재구성 요구
1989. 8. 1	2차 심사 무난히 통과
발표	창조과학회가 "창조론 교과서 채택"을 대외 발표
8월 1일자	도저히 이행 불가능한 수정 지시 — 4장 "생물의 진화" 16곳 전면 삭제 명령, 8월 9일까지 제출 (일주일 미만)
8월 19일자	검정 신청 포기 → 최종심사 불합격 처분

2차 심사 합격 후 불합격된 교과서는 검정 역사상 처음이었다

소송과 후속 — 정반대의 결과

- 검정 신청 포기 후, 창조과학회는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두고 소송을 제기 → 패소
- 1992. 10 발표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생물I: "'진화'는 인간 중심으로 다루되, 창조론은 다루지 않는다"
- 생물II: "진화를 다룰 때 창조설은 다루지 않는다" 명시 — 창조론 교과서 집필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
- 그나마 2009년 고교 생물 "유전과 진화" 영역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이 들어감
- 두 번째 시도: 고려문화사 권영석 사장 후원 → 역시 실패
- 계몽사는 교과서에 실으려던 진화론 문제점을 『진화론의 실상』이라는 별도 단행본으로 출간

1988. 4. 3 — KBS 3TV "창조냐, 진화냐?"

- 국내 최초의 TV 심포지엄으로 공영방송 KBS 3TV에서 방영
- 창조과학 측: 김정한(연세대), 김정욱(서울대), 이양림(이화여대 생물학과) — 이양림은 당시 신길성결교회 장로
- 진화론 측: 이인규(서울대 식물학과), 장기홍(경북대 지질학과), 양서영(인하대 지질학과)
- 흥미로운 사실: 진화론 측 세 사람도 모두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 — 유신진화론자(Theistic Evolutionists)였다
- 기독교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

1988. 11. 7-8 —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술집회

- 대학 캠퍼스 최초로 "창조와 진화" 두 주제가 동시에 다루어진 학술집회
- 주최: 단국대 미생물학과
- 창조론 강사: 김종배 (당시 건국대 축산대)
- 진화론 강사: 이병훈 (전북대 생물학과)
- 당초 동일 일정 토론 예정이었으나 이병훈이 사양 — 하루 전 발표, 다음날 김종배 발표
- 이틀간 연인원 500여 명 참석, 양측 영화상영 병행
- 김종배 강의 진행 중 생명과학분야 교수들이 충격을 받고 질문을 퍼붓다 집회를 도중에 마무리하는 사건 발생

1995. 11 — 계명대 양승훈 vs 양승영

- 계명대 철학과 목요철학세미나(실무책임: 안세권 교수) 주최
- 양측 토론자가 한 날 한 곳에서 논쟁한 최초의 집회
- 창조론: 양승훈 (경북대 물리교육과, 창조과학회 부회장)
- 진화론: 양승영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일본에서 중생대 고생물학 박사)
- 청중: 자연과학 전공자·생물학자·교사·학생·기자 등 200여 명
- 주요 쟁점: ① "창조 신앙이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② "생명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중간 형태(missing link) 화석과 지질학적 증거가 있는가?"
- 양승영은 메모지 한 장만 들고 등장 —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신화"라는 원론에 머물
- 양승훈이 부담을 느낀 것은 학교 대선배이자 같은 종중(宗中) 형뻘과의 대결이라는 점

<과학동아> 지상논쟁 (1991, 1995)

- 1991. 7 국내 최대 과학 대중지 <과학동아>가 양측 입장을 동일하게 다룬 특집 발간
- 독자 반응이 뜨겁자 8월호·10월호에서도 연속 게재
- 1995. 10월호에 다시 한 번 양측 입장 게재
- <과학동아>는 한동안 창조론-진화론 논쟁이 가장 활발히 다뤄진 일반 매체
- 이 시기는 양 진영의 학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황금기였다

송상용과 반창조론 진영

- 1980년대 중반부터 반창조론 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강해짐
- 선봉: 한림대 송상용(1937-2024) — "창조과학 운동은 비과학적, 심지어 반과학적"
- 한국과학사학회 중심으로 반창조론적 입장: 이병훈(전북대), 김명자(숙명여대), 장기홍(경북대 지질), 양승영(경북대 지구과학교육), 주광열(서울대 화학), 장희익(서울대 물리)
- 창조과학자들의 반론: 양승훈이 <한국과학교육회지>에서 송상용·장기홍·주광열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 김정욱(서울대)이 언론·잡지를 통해 반론
- 부산 물리교사 허성욱은 단행본을 통해 반박

자체 연구의 빈약함 — 신학적 기초 결핍

- 1994 장대식이 주빌리 국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자연과학적 탐구방법을 통한 삼위일체론 재해석> 제출 — 그러나 비주류 신학교라 주목받지 못함
- 1995. 5 ~ 1996. 4 부회장 원동연 제안으로 학회 운영 기획위원회 학술편집 분과위원회(위원장 부산대 김경천) 주관 5개 연구 프로젝트 채택 — 그러나 1회로 그침
- 정관상 정회원·임원은 "이공계 분야 석사 이상"이라는 조항이 신학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
- 신학적 함의가 큰 "창조" 주제를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공학자들이 과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한계
- 대중강연은 "학술적이지 않은 번역물"에 주로 의존 — 자체 연구 부재 → 침체 가속

창조과학교육관 건립의 좌절

- 미주 지부장 최인식의 제안으로 창립 10주년 비전 사업으로 출발
- 1989년 김영길이 500억 원 규모의 "창조과학교육관" 건립 계획을 공언
- 미국·호주·일본 창조과학회도 꿈꾸지 못한 규모
- 대전 EXPO('93) 전시관 건립·운영 경험으로 현실의 벽 확인
- 전시관 건립에만 1.5억 원, 그 중 2/3가 지도자 강사료·개인 현금, 1/3만 교회 후원
- 후속: "창조과학교육관 건립 교회후원회"(회장 대전 찬양교회 이홍남) 조직 → 2대 회장 송만석과 이홍남의 불화로 결렬
- 결국 매스컴만 뜨겁게 달군 채 무산

쿠즈네초프 사기 사건

- Dmitri A. Kouznetsov (1955-) — 박사학위 셋을 받았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스타 창조과학자"
- 러시아 창조과학협회(Russian Creation Science Fellowship) 리더로 1992·1994 모스크바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회차에 400여 명 참석
- 1993. 8. 6-7 KAIST에서 열린 제2회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에 초청 — 미·호·러·일 학자 동참
- 쿠즈네초프는 "미화 3만 불을 주면 화석자료로 창조를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호언 → 권도원 장로가 현금
- 그는 러시아 귀국 후 "입을 닦았다"
- Numbers 추적: 1994년 스웨덴 읍살라대 Dan Larhammar가 논문의 "증거 없는 실험들, 존재하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각주들" 발견 — 이탈리아 Gian Marco Rinaldi가 조작 논문이 50여 편에 이른다고 폭로
- 쿠즈네초프는 1997년 미국으로 도주

IV

조용한 출애굽과 새로운 시작

Silent Exodus and New Beginnings

큰 외형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기 시작했다.

IV. 출애굽 · 1

김영길·온누리교회·한동대 — 삼각구도

- 온누리교회는 1985. 10 하용조(1946-2011)가 78명으로 시작 — 2010. 6 9개 캠퍼스, 4개 기도처, 25개 비전교회, 75,525명 등록
- 건국대 축산과 동문(하용조·김종배·신현길), 원예학과 손기철, 그 외 김영길·민성기·송만석·김해리·김정한·김정욱·김경례·노희천 등 다수의 창조과학회 임원이 온누리교회에 합류
- 1985. 4 두란노서원이 창간한 <빛과 소금> 창간호에 창조과학회 임원 명단 게재
- 1995년 김영길이 한동대 초대총장으로 취임 — 교수진 상당수가 창조과학회·온누리교회 인사
- 초기 한동대 재정 위기 때 온누리교회가 결정적 지원
-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졸업 필수과목으로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

"연구하지 말고 교육하라" — 김영길의 노선

- 김영길은 훌륭한 공학자였지만 창조과학회·한동대 시기에 반지성주의적 면모를 보임
- 양승훈·원동연 등 소장 학자들은 "미국 자료 번역 소개에 그치지 말고 독자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
- 김영길의 일관된 답: "창조과학회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선교기관이다"
- 한동대 총장 시절: "밤에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누가 연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는 전설
- 이건창(→성균관대), 권오병(→경희대), 김두식(→경북대) 등 연구력 있는 젊은 교수들의 이탈
- 1999. 9 한동대 창조과학연구소 설립 — 그러나 강의 외에는 "실질적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송만석 2대 회장 취임 (1997)

- 1995년 김영길의 한동대 총장 취임 후 약 2년간 리더십 공백
- 1997. 2. 22 연세대 교수 송만석이 2대 회장으로 취임
- 김영길은 원래 젊은 이웅상·원동연을 다음 회장으로 세우려 했으나, 송만석이 본인이 회장을 해야겠다고 나서면서 "얼떨결에" 결정 — 민주적 의사수렴·지도자 선출 문화의 부재
- 취임 직후 송만석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조덕영에게 사임을 종용
- 조덕영은 1998 여름까지 안식년을 가진 후 퇴직 — 1997 서울 구로구 참기쁜교회 개척, 1998. 2 안양 성결교 신학대학원에서 MDiv. 졸업
- 후임 사무총장: 이은일의 부인 김경 자원봉사 → 김오현(전투적 성품으로 후일 교진추 창설로 이탈)

경직화와 외형주의 — 회장 계보

- 김영길 이후 회장: 송만석(연세대) → 이웅상(명지대) → 정계현(순천향대) → 이은일(고려대)
→ 한윤봉(전북대)
- 공통점: 회장이 바뀌어도 김영길의 "연구 대신 대중적 캠페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
- 교회의 절대적 지지·후원으로 "재정과 힘을 가진 단체"가 되면서 조직은 점점 경직
- "미국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전수받은 젊은 지구론과 대홍수론을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만" 함
- 초기의 유연함과 겸손함을 잃고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음
- 이러한 흐름이 외부의 대안 운동을 촉발하게 된다

사일런트 엑소더스 — 떠나는 초기 지도자들

- 원이삼 — 미국인 선교사. 1990년대 초 어느 집회에서 H. M. Morris를 비판하는 책을 판매 → 김영길로부터 "다시는 모임에 오지도 책을 팔지도 말라"는 금령
- 김정욱 — 서울대. 온누리교회 회계로 봉직 중 하용조의 교회재정 사용에 실망해 온누리교회를 떠남
- 김정한 — 연세대. 온누리교회의 한동대 지원을 비판 → "한동대 분규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으며 동반 이탈. 이미 창조론적으로도 거리감 발생
- 장근식 — KAIST 항공우주공학 → 후에 가톨릭으로 개종
- 고려대 최 모 — 부총장까지 역임했으나 주초(酒草) 문제로 활동 제한
- 노정구·유완영·이은호·유병우 등 창립 발기인 다수가 "사일런트 엑소더스" 그룹에 속함

지적 설계 운동의 배경

-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ID)는 "자연적 원인과 지적 원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다르다"는 직관에 근거
- 역사적 계보: Minucius Felix·Basil → Maimonides·Aquinas → Thomas Reid·Charles Hodge → William Paley의 시계공 논증(1802)
- Paley 이후 침체 — "자연적·지적 원인을 구분하는 구체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
- 20세기 후반 부활의 주역들: Charles Thaxton, Walter Bradley, Michael Denton, Dean Kenyon, Phillip Johnson
- 확장: Michael Behe, Stephen Meyer, Paul Nelson, Jonathan Wells, William Dembski
- 핵심 개념: Behe의 "환원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 Bohm의 "활동적인 정보"(active information), Schutzenberger의 "기능적 복잡성"(functional complexity), Dembski의 "복잡하고 구체화된 정보"(complex specified information)

지적 설계가 창조과학을 보완한 두 측면

창조과학 운동의 두 가지 약점을 보완한 지적 설계 운동

① 반지성주의의 탈피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이 잘 확립된 과학적 성과들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ID는 확립된 과학을 부정하는 대신 그 배경의 "자연주의"라는 형이상학적 특성에 집중. 논쟁의 초점을 "유신론 vs 자연주의"로 끌고 갔다.

② 지식인 대상 전략

창조과학이 대중적 캠페인으로 보수 기독교인에게 폭발적 지지를 얻었으나 지식인들로부터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해, 지적 설계는 지식인 사회로부터 유신론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 한국에서는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작.

한국 지적 설계의 시작 — RACS·SCR·NOAH

- 1994. 5. 14 KAIST 교회 학생 중심으로 "창조과학연구회"(RACS) 결성 — 고재형(1대), 박용화, 이재용, 신재현, 정희권(2대) → 이후 백성구, 김정재, 김광훈 등 합류
- 1998 서울대 창조연구회(SNU Creation Research, SCR) 결성
- 같은 해 1998 창조과학회 산하 청년 모임 NOAH 시작
- 세 모임이 협력해 ID의 주요 저서 번역·출간: 『다윈의 블랙 박스』(Behe), 『균형 잡힌 이성』, 『다윈주의 허물기』(Johnson)
- 그러나 중심 멤버들이 졸업하면서 활동은 점차 시들해짐

지적설계연구회 — 2004. 8. 21 창립

- 교수들 차원에서 본격 시작 — 서강대 기계공학과 이승엽 교수 중심
- 정식 명칭: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Intelligent Design
- 자임: "지적 설계 관련 순수 연구단체로서 국내 지적 설계 관련 연구를 통합·활성화하여 진화론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과학적 대안 이론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
- 지적 설계 심포지엄 정기 개최 및 관련 서적 번역·출간 지속

"1998년 서울대 창조과학 모임을 결성하면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모임에서는 창조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창조과학에 실망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 보면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래된 연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영식 박사 (SCR), <뉴스앤조이> 인터뷰

Henry Morris의 지적 설계 비판

- 미국에서는 ID와 창조과학이 "양립할 수 없는 운동"으로 정리됨
- 모리스의 세 가지 비판:

① 혼합주의

ID 옹호자들의 종교적 배경이 다양
— Jonathan Wells(통일교),
Michael Denton(불가지론자),
Michael Behe(가톨릭). 창조과학자들은 이를 혼합주의로 배척.

② '그 설계자'가 누구인가

ID의 "지적 설계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이슬람의 알라인지, 힌두교의 브라만인지 알 수 없다 →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라는 비판.

③ '틈새의 신' 함정

과거 자연신학이 그랬듯, 설명 못한 부분을 설계자의 개입으로 메우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의 활동 영역이 줄어든다. (God-of-the-Gaps)

"비대칭적 우호 관계"

- 한국 창조과학회는 ID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표명
- 1994 창조과학회가 Denton의 『진화론과 과학』 번역 출간
- 창조과학 강사들이 대중강연에서 ID 지도자들의 주장을 빈번히 인용
- 그러나 이 "우호"는 일방적이다 — ID 측은 창조과학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음 (위 김영식 인터뷰 참조)
- 조덕영: "미국 창조과학자들도 처음에는 ID가 우군이라 생각했으나 후에 양립 불가라고 결론. Ken Ham이 Behe를 공격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 한국에서는 여전히 ID를 "창조과학의 우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2012년 교과서 청원과 Nature 보도

- 2012년 교진추는 교육부에 "시조새(Archaeopteryx)와 말 진화계열 그림"의 교과서 삭제를 두 차례 청원
- 교육부가 청원을 주요 교과서 출판사에 전달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짐
- <Nature>에 보도되어 국제적으로 알려짐 (Soo-Bin Park, 2012)
- 한국고생물학회 + 한국진화학회 추진위원회: 즉각 "교진추 청원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발표 — "검증과 논박에 의한 과학적 지식체계의 발전 과정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 교육부는 시조새·말 그림 삭제 요구를 출판사에 "무시하라"고 지시 → 교진추의 활동은 주류 언론·교계의 관심에서도 멀어짐

"Science wins over creationism in South Korea — Government asks publishers to retain examples of evolution in science textbooks."

— Soo-Bin Park, Nature (2012)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 — 2010. 1. 23

- Society for Textbook Revision (STR)
- 창조과학회 회원 김오현·임번삼·이광원 중심 — 창조과학회 안의 답답함을 토로한 김오현이 별도 단체로 분립
- 정관·웹사이트 Q&A: "(사)교진추의 연구 영역은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론이 아니고 오직 반진화론"
- 교과서 개정을 "사회적 의무"로 규정 — 창조론을 넣을 수 없다면 진화론을 빼겠다는 발상
- 특징: 창조과학회가 시도했던 교과서 채택의 "우회 전략"

김명현 — 성경과학선교회

- 김영길이 근무하던 KAIST 재료공학과 박사
- 박사학위 전부터 창조과학 운동에 적극 참여
- 박사 후 창조과학회 전임간사로 헌신
- 김영길의 한동대 초대총장 취임 후 곧이어 한동대 교수로 자리 이동
-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한동대 사임 → 서울에서 성경과학선교회 설립
- 현재까지 대중강연 사역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



내파(內破)의 시대

Implosion — Cracks from Within

외부 비판은 무시할 수 있었으나,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그렇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창조과학회는 가장 신뢰했던 가족 안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양승훈과 VIEW — 변화의 시작

- 양승훈은 14년간 근무한 경북대 교수직을 사직
- 1997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파송으로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 →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VIEW) 설립·운영
- 한국 대학을 떠나 본격적인 창조과학 공부에 집중 가능 — 공부할수록 젊은 지구론의 문제점이 분명해짐
- 결정적 요인: ① 위스콘신대 Ronald Numbers 지도 하에 과학사 석사 공부 ② 미국 복음주의 학자들과의 교류 ③ VIEW에서의 강의·연구
- 젊은 지구론에 "과학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신학적·성경해석학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VIEW의 창조론 강의 — SCS 503

- 1999 정식 대학원 강의 시작 — "SCS 503 Origin Theories in the Bible, Science & History" (3 학점)
- 비전공자·목회자 대상 36시간 강의 — 산발적이었던 창조론 운동의 내용을 과학·신학·성경해석 학적으로 정리
- "SCS 502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와 결합 → 창조과학의 과학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
- 2014~ "SCS 691 Creation Studies Field Trip" 3학점 탐사여행 과목 신설 (졸업 필수)
- 2016~ "SCS 690 Creationism Seminar" 3학점 세미나
- 록키산맥·앨버타 공룡박물관까지 4박 5일·2,800km·22개 사이트 방문 — 격변의 흔적을 직접 답사

다중격변창조론(Multiple Catastrophes Creationism)

- 2000년대 초 19세기 프랑스 생물학자 Georges Cuvier의 다중격변론을 접하며 "젊은 지구론이 틀렸다"는 확신
- 단일 격변(노아 홍수)으로 모든 지층을 설명하려는 창조과학과 결별
- 캐나다 New Brunswick 대학의 운석공 연구에 주목 — 지표면의 200여 개 운석공이 거대 격변을 일으켰을 가능성
- 거대 운석충돌 시기와 지구역사 대멸종 시기의 대체적 일치 확인
- 특징: ① 격변(catastrophe) — CSM과 일치 ② 단일 격변이 아닌 다중 격변 — CSM과 결별 ③ 오랜 지구론 — CSM과 정반대
- 2003년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캐나다 기독교과학자 협회(CSCA) 연차대회에서 최초 발표

『창조와 격변』(2006)과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

- 2006 『창조와 격변』 출간 — 오랜 지구론적 입장 분명히 표명
- 1996 출간된 자신의 『창조론 대강좌』(CUP, 젊은 지구론 입장)의 출간 중지를 출판사에 요청
- 당시 양승훈은 여전히 창조과학회 평생회원·이사·부회장 — 다행히(?) 지도자들이 책을 읽지 않아 한동안 문제 되지 않음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 (SFC 출판부)

1권 (2011) 다중격변 창조론	2권 (2013)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3권 (2019) 창조와 진화?	4권 (2020)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5권 (2020)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6권 (2021) 창조연대 논쟁	7권 (2022) 과학사와 과학철학	

창조론 오픈포럼 (Open Forum) — 2007. 8. 13

- 2007. 8. 13 경기도 팔당 분원초등학교 검천분교 첫 모임
- 양승훈 제안, 조덕영 공동대표로 출범
- 취지: "폐쇄적·반성 없는 창조과학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 다양한 창조론 논의를 위한 열린 토론의 장
- 참여조건: "성경의 창조 기사·과학적 증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절대시 하지 않는 마음"
- 양승훈의 한국 방문(연 2회)에 맞춰 2-3월·7-8월 정기모임, 학술지 <창조론 오픈포럼> 연 2회 발간
- 후기에는 박찬호(백석대, 조직신학), 이선일(소망정형외과), 이용국(성민대, 화공), 최태연(백석대, 철학) 등 공동대표 체제로 확장

오픈포럼의 성과 — DBpia 통계



- 한국교계에 "창조과학 일색이 아닌, 복음주의적 성경관에 입각한 다양한 창조론"이 있음을 처음으로 소개
- 창조과학회의 대중적 캠페인과 달리 학술적 활동(논문발표회·논문집 발간)에 집중
- 한국에서 새로운 창조론 운동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

2008. 8 — 양승훈 제명 사건

- 오픈포럼의 일부 논문이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비판한 데 대해 창조과학회가 노골적 불만
- 2008. 8 정계현 회장 재임 중, 오랜 지구론 제기를 이유로 양승훈을 제명
- 양승훈의 지위: 창립 발기인·당시 부회장·이사·평생회원
- 이사회가 작성한 "젊은 지구론의 증거" 문건의 30개 이상 인용 문헌 중 학술적 가치 있는 것이 거의 전무
- 참여자 중 지구·우주 연대 분야 전문가 한 사람도 없음 — 문건 작성 대표는 서울 인근 대학의 "웹디자인 학과 교수"
- 양승훈은 여러 경로로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 8. 11 — 김준곤의 중단 요청

- 오픈포럼에 대한 불편함은 창조과학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 창조과학회 창립의 "산파역"이었던 CCC 총재 김준곤도 부담
- 2008. 8. 11 서울대에서 진행 중이던 제3회 창조론 오픈포럼 도중, 김준곤이 양승훈에게 직접 전화

“양 교수님, 창조론 오픈 포럼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 김준곤 → 양승훈

“김 목사님, 창조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 양승훈 → 김준곤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ism)의 부상

- 오픈포럼은 젊은 지구론에 비판적이었으나 생물의 대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음
- 근래에는 대진화를 인정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 정의: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되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창조했다고 보는 입장 — 진화적 창조론·하나님이 인도하는 진화 등으로도 불림
- 역사적으로는 1990년대 ID론, 1960년대 본격화된 창조과학보다 훨씬 오래된 입장 — 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북미주 ASA(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캐나다 CSCA, Francis Collins의 BioLogos, Wheaton College, Calvin College 등 다수 복음주의 학자들이 유신진화론에 기울어 있음

한국의 유신진화론자들 — 최승언과 우종학

최승언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현 명예교수)

서울대 천문학과 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천체물리학 박사, 1985년 초 귀국 후 "빅뱅이론이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자들이 "빅뱅이론이 틀린 이론"이라 주장하는 데 놀람. 후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장신대에서 목회학 석사(MDiv.) 취득, 지금까지도 창조과학 비판을 계속.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IVF 출신, 연세대 천문학과, 예일대 천문학 박사. 단체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 2015 한동대 공개강연 취소, 예정 고신 SFC 수련회 강의로 인한 교단 분란(서울지역 대표간사 사임), 2016. 11. 1 총신대 명품특강 4일 전 일방 취소 등 보수 교계의 반발이 잇따름. 그러나 2-30대 신세대에 SNS로 강력하게 다가가고 있음.

과신대(과학과 신학의 대화) — 2017

- 2017년 초 우종학이 만든 과신대가 오프라인 단체로 정식 출범
- 비전: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반계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
-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의 결과와 특별계시인 성경의 내용을 함께 읽어가며 창조주와 창조세계를 연구"
-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통해 창조주와 창조세계를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균형 있는 교육을 제공"
- 콜로퀴움 개최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 중
- 한국 창조론 운동의 다층 구조: ① 창조과학회 ② 지적설계연구회 ③ 창조론 오픈포럼(다중격변·오랜 지구) ④ 과신대(유신진화론)

VI

조로(早老)의 징후?

Symptoms of Premature Aging? — 2017 and After

외형은 크지만 노화의 그들은 젊다. 2017년의 충격은 단지 한 차례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40년 운동에 누적된 균열을 일거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박성진 사건 — 분수령 (1)

-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창조과학 관련 두 인사가 지명
- ① 유영민 — 미래창조과학부(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②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POSTECH 기계공학과 교수, 현 한동대 총장

유영민 (2017. 7)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진화론 입장을 묻자 처음에는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으나, 후에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동의한다.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 청문회 통과 → 장관 임명.

박성진 (2017. 8. 24 지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질문 "지구의 나이를 몇 살이라 보는가"에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 "창조과학을 믿는 입장에서는 6000년이라 한다"고 답변. "창조과학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에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입증된 부분은 인정"이라는 어정쩡한 답.

박성진 사건 — 분수령 (2)

- "부적격" 의견이 명시된 청문회경과보고서가 국회에 채택된 지 이틀 만에, 지명된 지 19일 만에 박성진 자진 사퇴
- 그에게 질문한 사람이 진화론자가 아니라 청문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여당 의원"이었다는 점이 결정적
- TV 생중계로 온 국민이 시청한 청문회
- 일반 언론들이 창조과학을 "비과학", "사이비 과학"으로, 창조과학회를 "사이비 과학집단"으로 보도
- 효과: 일반 기독교인은 물론 창조과학에 관심 있던 크리스천 학자들마저 "몸을 사리게" 만들
- 한국 사회에서 창조과학 운동이 처음으로 "공직 부적격" 사유로 작동한 분수령이 되었다

박성진 이후의 변화 — ① 후퇴

'대중적·공적 영역'에서 '교회 내부'로의 후퇴

- 과거 창조과학회: 창조론 교과서 채택, 진화론 내용 삭제 청원 등 공적 영역·주류 사회 진출을 적극 시도
- 박성진 사건 후: 주류 과학계·언론·대중으로부터 "유사과학(사이비 과학) 집단"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
- 대외적·공적 성격의 활동을 대폭 축소
- 기존 교회 성도 대상 신앙 교육·주일학교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폐쇄적 방어 형태로 전환
- 한 마디로: "전선의 후방으로 물러섬"

박성진 이후의 변화 — ② 성경 변호로 초점 이동

창조의 과학적 증명 대신 '성경 변호'로

- 청문회 과정에서 "지구 나이 6천년설"과 "창조론의 과학적 입증"에 대한 주류 과학계의 공세가 이어짐
- 창조과학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섬
- 대신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도 모순이 없음을 변호하는 수준"이라고 해명
- 주류 과학과의 직접적 충돌이나 학문적 대결을 피하려는 태도
- 용어 전환의 시도: 'Creation Science' → 'Creation Faith'

박성진 이후의 변화 — ③ 다양한 창조론의 부상

교계 내부의 성찰 — 유신진화론·다중격변창조론 등

- 박성진 사건은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젊은 지구론)이 오히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교계 내부 비판을 키움
- 과학적 사실(우주의 나이, 대폭발 이론 등)을 수용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유신진화론·오랜 지구론을 지지하는 학자·단체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
- 다중격변창조론(양승훈), 유신진화론(과신대) 등이 대안으로 부상
- 한국 창조론 운동 지형이 사실상 다극 구조로 재편 중

박성진 이후의 변화 — ④ 청년층 이탈

인적 쇄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 공직 수행이나 학문적 커리어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창조과학회 내부의 한 인사: "박성진의 사퇴 후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
- 학자들이 창조과학자와 논문·책을 공저하는 것조차 후일 문제 될 수 있다고 인식 (유영민 청문회의 직접적 교훈)
- 결과: 학회의 재생산 가능성에 균열

신학계로부터의 누적된 비판

- 김영길의 추천사: 이재만 『창조과학 콘서트』(두란노, 2006)에 "성경은 진정한 과학 교과서다!" —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는 복음주의 진영에서조차 비판
- 송만석(전 회장)의 "백 투 예루살렘 운동"(KIBI) → 한국 대표 요한계시록 학자 이필찬이 "성경적·종말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평가
- 건국대 손기철(전 임원, 원예학과 명예교수)의 치유 사역 → 예장합동 교단이 "이단에 준한 양태론적 문제점과 신사도적 경향성"을 지닌다고 평가
- 창조과학 지도자들이 창립 때부터 신학에 "냉소적"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의 필연적 결과

대중 사역의 한계 — 인터넷 시대

- 21세기 인터넷 시대 — 대중들이 더 이상 "과학자의 명성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정보 접근
- 조덕영: "이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도 슬라이드 몇 장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을 교회에서 강연하는 것을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시기는 지났다"
- 젊은 지구론·대홍수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신학·크리스천 과학자가 있음을 대중이 인식하게 됨
-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영향력 있으나 사회·학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격차가 벌어짐

해외 복음주의 학계의 비판

- Howard J. Van Til (1938-, 칼빈대 물리학)
- Davis Young (칼빈대 지질학)
- Pattle Pun (위튼대 생물학)
- Mark Noll (1946-, 노트르담대 역사학)
- Francis Collins (1950-, 인간 게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 BioLogos 창립자
- Hugh Ross (1945-, 캐나다 천문학자) — Reasons to Believe 창립자
- 복음주의 신학·과학 영역의 권위자들 다수: Bernard Ramm, Gleason L. Archer Jr., Walter C. Kaiser Jr., Alister McGrath, John Polkinghorne, Ian Barbour, John Haught
- Karl Barth: "창조과학 류의 자연신학은 쓰레기 신학일 뿐이다"

학계로부터의 외면

- 창조과학은 교회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추종자를 확보 — 그러나 해당 과학·신학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변방으로" 밀려남
- 원인: ① 지적으로 열려 있지 못함 ② 아마추어들의 운동이었다는 점
- 과학의 이름을 달았으나 "해당 분야의 과학자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유리"
- 전문가 회원 확보 노력은 별 소득이 없었다

창조과학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크리스천 학자들 (일부)

- 크리스천 지질학자: 양승영, 장기홍, 이문원
- 크리스천 생물학자: 양서영, 이인규
- 크리스천 물리·천문학자: 최승언, 이영욱, 우종학, 윤석진, 권영준

종합 — 40년의 궤적

1980	여의도 '80세계복음화대성회 — 창조과학의 한국 상륙
1981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 엘리트 과학자 주도, 교파 초월적 확산
1989-92	교과서 운동의 좌절 — 그러나 교계의 결집
1990년대	전성기 — 수 만 회 강연, 100여 강사, 전국 지부
1997~	조용한 출애굽 — 초기 지도자들의 이탈, 경직화
2004	지적설계연구회 창립 — 학자 차원의 대안 운동
2007	창조론 오픈포럼 — 내부로부터의 학술적 도전
2010	교진추 출범 — 또 다른 분기, 그러나 곧 주변화
2017	박성진 사건 — "사이비 과학" 낙인, 분수령
2020s	교회 내부로의 후퇴, 다극 구조의 정착

회고 — 성취

- 한국 기독교계에 "과학과 신앙"이라는 의제를 본격적으로 제기
- 엘리트 과학자들이 자발적·집단적으로 신앙적 운동을 조직한 한국 기독교사의 흔치 않은 사례
- 수만 회의 대중강연으로 신앙과 과학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평신도의 갈증을 해소
-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운동
- 출판·문서 사역의 규모와 영향력은 한국 복음주의 문서운동사에서 독자적 좌표
- 지부·청년 모임을 통한 자생적 확산 — 풀뿌리 모델의 강점
- Ronald Numbers가 한국을 "세계의 창조론 수도"로 명명한 사실 자체가 국제 학계의 주목

회고 — 한계

-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의 자신감 — 생물학·지질학·천문학 전공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핵심 분야로 진입
- 신학적 기초의 빈약함 — 정관상 신학자 참여 봉쇄, 신학적 함의가 큰 "창조"를 과학자만으로 다룸
- 자체 연구의 부재 — "미국 ICR 자료의 번역·소개"에 머무는 구조
- 대중적 캠페인 의존 → 인터넷 시대 진입과 함께 한계 노출
- 조직의 경직화 — 다른 입장을 가진 회원에 대한 제명(2008 양승훈), 책 비판자에 대한 금령(원이삼)
- 신학적 일탈 — 백 투 예루살렘, 손기철 치유사역 등 인접 운동의 신학적 문제
- 사회적 신뢰의 상실 — 2017년 "사이비 과학" 낙인

전망 — 한국 창조론의 다극 구조

창조과학회(KACR)

젊은 지구론·단일 격변(노아 홍수)·문자적 6일 창조, 교회 안의 베이스. 박성진 이후 교회 내부로 후퇴.

지적설계연구회(KRAID, 2004~)

방향성 없는 자연주의 비판. 지식인 대상, 창조과학회와는 "비대칭적 우호".

창조론 오픈포럼(2007~)

오랜 지구론·다중격변창조론, 양승훈·조덕영 등이 견인. 학술지 <창조론 오픈포럼>.

과학과 신학의 대화(2017~)

유신진화론, 우중학 중심. 청년층·SNS 영향력, 보수 교계와 빈번한 마찰.

전망 — 한국 창조론 운동이 직면한 질문

- ① 신학의 회복 — "창조"는 본래 신학적 진술. 신학자·역사가가 참여하는 학제적 논의가 필수적
- ② 과학 공동체의 인정 — "창조과학"이 학문이라면 동료 평가(peer review)·국제 학술지·재현 가능한 연구가 필요
- ③ 청년·차세대 — 인터넷·SNS 세대에 적합한 콘텐츠와 정직한 응답
- ④ 교회의 자기성찰 — 30년 이상 한 입장만을 들어온 평신도들에게 "복음주의 안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일
- ⑤ 공교육과의 관계 — 교과서 개정 시도와 같은 외부 충돌이 아닌 시민사회 안의 정직한 대화
- ⑥ 국제적 연결 — Numbers·Park·Cho 등의 학문적 작업과 한국 교회 내 논의를 연결할 통로

CONCLUSION

결론 — 한 시대의 끝과 다음 한 세대

- 1981년 창립된 한국 창조과학 운동은 20세기 후반 한국 기독교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운동 중 하나였다
-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아짐으로 인해 신학적 함의가 큰 창조라는 주제에 대해 신학자들조차 기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진단
- 한국에서 창조과학은 "학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영역으로 선이 그어졌고, 그 결과 학회의 활동 반경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축소되었다
- 그러나 이것이 한국 창조론 운동의 종말은 아니다 — 다중격변창조론·유신진화론·지적 설계 등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다극 구조로 재편 중
- 다음 한 세대의 과제는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신학·과학·교회·시민사회가 어떻게 정직하게 대화할 것인가에 있다

"이후의 창조과학 운동이나 창조과학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조과학은 더 이상 해당 분야 학계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 양승훈 (2026)

REFERENCES

참고문헌 (Chicago Style) — I

일차 자료 (Primary Source)

- 양승훈.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제 강연 원고. 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교, 2026. (본 발표의 본문 출처)

국제 학계의 한국 창조과학 연구

- Numbers, Ronald L. The Creationists: From Scientific Creationism to Intelligent Design. Expand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Park, Hee-Joo. "The Creation-Evolution Debate: Carving Creationism in the Public Mind."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0, no. 2 (April 2001): 173-86.
- Park, Hyung Wook, and Kyuhoon Cho. "Science, State, and Spirituality: Stories of Four Creationists in South Korea." History of Science 56, no. 1 (March 2018): 35-71.
- Park, Hyung Wook. "Practicing Creationism: Science and the New Religious Practices in South Korea." Almagest 12, no. 1 (2021): 12-39.
- Park, Hyung Wook, and Ronald L. Numbers. "Introduction: Understanding Creationism in Korea." Almagest 12, no. 1 (2021): 4-9.

REFERENCES

참고문헌 (Chicago Style) — II

국제 학계 (계속)

- Park, Hyung Wook. "South Koreans' Responses to Evolution and Creationism: A Survey and Its Implication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022).
- Park, Hyung Wook. "Creation Science as Culture: South Korean Antievolutionists' International Practices in Four Countrie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2025).
- Park, Soo-Bin. "Science Wins over Creationism in South Korea." Nature, September 6, 2012. <https://doi.org/10.1038/nature.2012.11377>.
- Park, Soo-Bin. "South Korea Surrenders to Creationist Demands." Scientific American, June 6, 2012.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3, no. 2 (August 2018). Special issue on creationism in Korea.

국제 창조과학 운동사 — 비교 연구

- Larson, Edward J. Summer for the Gods: The Scopes Trial and America's Continuing Debate over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Basic Books, 2006.
- Morris, Henry M. History of Modern Creationism. San Diego: Master Book Publishers, 1984.
- Coleman, Simon, and Leslie Carlin, eds. The Cultures of Creationism: Anti-Evolutionism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Aldershot: Ashgate, 2004.

참고문헌 (Chicago Style) — III

한국 내 주요 단행본 및 학술지

- 양승훈, 『창조와 격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1: 다중격변 창조론』, 부산: SFC 출판부, 2011.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2: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부산: SFC 출판부, 2013.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3: 창조와 진화』, 부산: SFC 출판부, 2019.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4: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부산: SFC 출판부, 2020.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5: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부산: SFC 출판부, 2020.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6: 창조연대 논쟁』, 부산: SFC 출판부, 2021.
- 양승훈, 『창조론 대강좌 7: 과학사와 과학철학』, 부산: SFC 출판부, 2022.
- 양승훈·조덕영 편, <창조론 오픈포럼>, 1~20권 (2007~2017).
- 한국창조과학회, <창조>, 1981~.
- 한국창조과학회 편,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서울: 한국창조과학회, 1981.
- 한국창조과학회 편, 『자연과학』, 김영길 외 26인 공저, 서울: 한국창조과학회, 1990.

참고문헌 (Chicago Style) — IV

번역서 및 관련 주요 서적

- Behe, Michael J. Darwin's Black Box: The Biochemical Challenge to Evolution. New York: Free Press, 1996. 한국어 번역: 『다윈의 블랙 박스』.
- Denton, Michael. Evolution: A Theory in Crisis. Bethesda, MD: Adler & Adler, 1985. 한국어 번역: 『진화론과 과학』, 서울: 한국창조과학회 출판부, 1994.
- Johnson, Phillip E. Darwin on Tri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1. 한국어 번역: 『다윈주의 허물기』.
- Lewin, Roger.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 Science 210, no. 4472 (November 1980): 883-87.
- Lindsey, Hal. The Late, Great Planet Earth. Grand Rapids: Zondervan, 1970. 한국어 번역: 『대유성 지구의 종말』.
- Numbers, Ronald L. 『창조론자들』, 신준호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Paley, William. Natural Theology; or, Evidences of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the Deity. London: R. Faulder, 1802.
- 이재만, 『창조과학 콘서트』, 서울: 두란노, 2006.

REFERENCES

참고문헌 (Chicago Style) — V

정기간행물·언론보도·웹자료

- <과학동아>, 「창조론과 진화론 특집」, 1991년 7월호; 8월호; 10월호.
- <과학동아>, 「창조론과 진화론 재논의」, 1995년 10월호.
- 홍석원, 「노아 방주의 안정성 연구」, <과학동아> 1993년 8월호.
- <한국일보>,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총회」, 1981. 1. 27.
- <조선일보>, 1981. 2. 3; <중앙일보>, <한국일보> (1981.1.27); <경향신문> (1981.1.28.); <동아일보> (1982.2.22.).
- <복음과 상황>, 창조과학 관련 비판적 기사 다수.
- <뉴스앤조이>, 김영식 인터뷰 및 한국 창조론 운동 관련 기사들.
- 한국창조과학회, 공식 홈페이지 <https://creation.kr>.
- 지적설계연구회(KRAID), 공식 홈페이지.
-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STR), 공식 홈페이지 및 청원 자료 (2012).
- 과학과 신학의 대화(과신대), 공식 홈페이지 및 우중학 페이스북.

REFERENCES

참고문헌 (Chicago Style) — VI

관련 비교 자료 — 미국·국제

- Barbour, Ian G. Religion and Sci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San Francisco: HarperOne, 1997.
- Collins, Francis S. The Language of God: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Free Press, 2006.
- Dembski, William A. The Design Inference: Eliminating Chance through Small Probabil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McGrath, Alister E. Science and Religion: A New Introduction. 3rd ed. Oxford: Wiley-Blackwell, 2020.
- Morris, Henry M., and John C. Whitcomb. The Genesis Flood: The Biblical Record and Its Scientific Implications.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1.
- Polkinghorne, John. Science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SPCK, 1998.
- Wells, Jonathan. Icons of Evolution: Science or Myth? Washington, DC: Regnery, 2000.
- Young, Davis A. The Biblical Flood: A Case Study of the Church's Response to Extrabiblical Evidence. Grand Rapids: Eerdmans, 1995.
- Hardin, Jeff, Ronald L. Numbers, and Ronald A. Binzley, eds. The Warfare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The Idea That Wouldn't Di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8.

본 발표의 인용 표기 방식

- 본 발표의 본문(서술·인용·통계·인명) 대부분은 양승훈(2026),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에서 직접 인용되었음을 밝힙니다.
- 이차적 학술 인용은 Chicago Manual of Style 17th ed.의 Notes-Bibliography 방식 중 Bibliography 양식에 준해 표기했습니다.
- 한국어 자료는 "저자. 「논문/장 제목」. 『단행본 제목』, 권/호 (출판연도): 쪽수" 형식을, 한국어 단행본은 "저자.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형식을 따랐습니다.
- 영문 자료는 "Last, First. "Article." Journal Vol, no. # (Year): pp." 또는 "Last, First. Title. City: Publisher, Year." 형식을 따랐습니다.
- 발표 슬라이드의 분량 제약 상 일부 부차 인용은 본문 출처로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양 승 훈 · 에스와티니 기독교대학교

Q & A 환영합니다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제 강연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양승훈
		논찬자 (소속)	이윤석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양승훈 박사의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은 원래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의 열성 회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어떻게 창조과학회를 떠나 ‘오래된 지구 점진적 창조론’의 입장으로 바뀌었는지 그 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양 박사는 지구와 우주 나이 6천년설에 사로잡혀 있는 창조과학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훨씬 더 길다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물의 중간 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화학진화, 인간진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와 지구의 물리적인 변화(유신진화론자들은 이것도 ‘진화’라고 표현하지만)는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오래됨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격변창조론’이란 가설을 채택합니다.

오늘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유신진화론이라는 세 가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함께 토의하는데, 저는 양 박사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 박사는 먼저 창조세계를 연구하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이 만고불변의 확실한 진리라고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일종의 ‘작업가설’로 여기고 연구하자고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날 세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지구론과 오래된지구론을 모두 수용하며, 유신진화론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의 조직신학 박사로 교단의 교리 선생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장합동, 오늘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학교가 속한 고신, 그리고 합신과 같은 교단, 개혁주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유신진화론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북미 지역의 OPC, PCUSA와 같은 장로교, 남침례교 교단도 유신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작고한 팀 켈러 목사는 세상의 기원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을 장려했고, 실제로 유신진화론을 주된 입장으로 갖는 ‘바이오로고스’가 설립되는 데 얼마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는 이후 ‘오래된 지구 점진적 창조론’의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 때문에 계속해서 유신진화론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OPC, PCUSA 교단이 창조론 특별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이 주제에 대해 정리한 입장을 수용합니다. 이 교단들 및 주요한 신학자들(헤르만 바빙크, 찰스 핫지, 루이스 벨코프, 박형용, 로버트 레이몬드, 존 프레임 등)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길이의 날 관점’, ‘특정되지 않는 길이의 날 관점’, ‘날-시대 관점’, ‘틀 관점’, ‘유비적 관점’ 등 5가지 관점을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관점들로 여깁니다.

저는 젊은지구론 및 오래된지구론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에서 젊은지구론과 유신진화론 진영에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젊은지구론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지구론 자체보다는 창조과학회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회가 산출하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나이 6천 년설, 젊은지구론은 여전히 세상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신학적으로 가장 단순명료하면서도 명쾌한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구와 우주 나이 6천 년설만을 주장하는 것, 더 나아가 지구 나이 6천 년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모든 주장에 대해서(유신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자들에 대해서도) 타협 이론을 주장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들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가 내부에 있는 이런 이들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신진화론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신진화론 진영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진화’라는 용어로 세상의 변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진화’라는 용어는 원래 생물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 상황에서 단지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면서 생물 종간의 ‘진화’까지도 포함하여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우주의

변화를 의미하는 우주 진화는 있을지라도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그랜드 스토리에 빠져 그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정직한 과학자라면 무기물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로 저절로 발전했다는 화학 진화, 유기물이 모여서 저절로 원시 세포를 형성했다는 생물 진화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1~3장에 기술된 창조 사건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비과학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창세기의 서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특히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는 창조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역사적 사실로 보고 언급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의 성경 기록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관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론 이런 성경관은 개혁주의 기독교의 성경관이므로 우리는 그런 성경관과 다르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교단이나 신학 사조에 대해서까지 저의 개혁주의 기독교 성경관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셋째, 유신진화론 진영이 창세기 1~3장의 사건(천지창조 및 인간의 창조는 기적 사건임)이 비과학적이므로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있었던 각종 기적들(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등) 및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신진화론 진영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신진화론 지지자들이 창세기 1~3장의 창조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신약 시대의 각종 기적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비일관성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 과정’에 대해서는 비록 창조 사건 자체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과정이 남긴 유전자, 화석, 지질학적 층위 등의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있으며 24시간 6일 창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의 서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진화’로 하나님이 사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자연법칙 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고유의 사건’이므로 과학적 검토가 아니라 ‘빈 무덤’,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역사적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 그런 역사적 증거들이 있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창세기 1~3장의 창조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격상 ‘기적’에 해당하는 두 사건, 즉 창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이런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유신진화론 진영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유신진화론 진영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비과학적이지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데 천지창조 사건은 비과학적이라서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없다는 비일관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양승훈 박사님의 ‘작업 가설’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신학 노선에 맞게 세상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일관성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는 서로의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 신사협정이 필요할 듯합니다.